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30주년, 다시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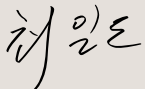
다일공동체 30주년, 다시 처음으로

2018년은 다일공동체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볼수록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에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이제 다일공동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에서 배가 고파 쓰러진 '한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다일공동체, 그 초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사단법인 다일인터내셔널 데일리리더십'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데일리리더십은 외교부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내외의 빈곤층에 대한 빈민촌 지역의 의료, 선교, 문화, 보건, 교육지원사업 등과 긴급구호사역을 주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에서 감당해 오던 해외 사역들을 외교부 소속 사단법인 '데일리리더십'이 맡아 나갈 것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쓰실 만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일공동체는 매년 밥상공동체 가족들과 거리성탄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과 선물도 나누며... 그런데 지난 해 거리성탄예배가 더 특별했던 것은 바로 30번째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다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후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일공동체가 앞으로도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따라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한 사람, 한 생명'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새해에도 다일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작은형제  올림

CONTENTS

02
30주년 특집 I

04
현장스케치

05
기부금 영수증

06
30주년 특집 II

08
나누고 싶은 이야기

10
분원소식

10 중국
18 네팔
26 캐나다

12 캄보디아
20 우간다
28 밥퍼나눔운동본부

14 베트남
22 탄자니아
30 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16 필리핀
24 미국

33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36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후원 명단

38
후원 안내

39
후원 신청서

40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다일공동체 30주년,
다시 처음으로"

다일공동체에게 2017년은 매우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리에 쓰러져 밥을 굶고 있는 함경도 할아버지에게 설령탕 한 그릇 대접한지 30년, 다일복지재단 설립 20년, 중국 훈춘에 북한동포들과 조선족 고아들을 위한 다일어린이집을 세운지 20년을 맞이한 해이면서 또한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새로운 중심인 사단법인 데일리다일이 세워진 해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단 한사람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고 대접했던 한 그릇의 나눔이 이어지고 이어져 전세계 곳곳으로 그 나눔의 운동이 번져나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마음을 모아준 많은 후원회원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20년 전 북한의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 땅으로 와서 먹을 것을 찾는다는 소식이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훈춘 땅을 찾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훈춘 땅을 바라보며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키워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부터 중국다일공동체 다일어린이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그릇부터 나누는 마음, 한 포기 나무를 심는 마음이 전세계 10개 나라 18개 분원으로 번져나갔고, 해외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저개발국가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나눔과 섬김의 다일 사역이 국내의 밥퍼사역과 천사병원 사역만큼이나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올바르게 해외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나눔사역 30주년, 해외공동체 건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에 해외 다일사역을 전담할 외교부 산하의 법인인 '사단법인 다일인터내셔널 다일공동체 데일리다일'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전 세계의 이웃들에게 의료, 선교, 문화, 교육 사업을 펼침으로써 자라나는 해외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어 건강하고 바른 리더로 육성하는 일과, 지역주민들이 자활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건립하도록 돕는 일들이 데일리다일을 통해 힘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데일리다일 창립총회가 열린 날은 11월 11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막대 과자같이 일자가 줄줄이 서있다고 막대 과자를 나누는 뽀빠로데이라 칭하지만 다일의 사역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든 숫자가 일로 통일되어 모두 다~일자인 다일의 날로 부릅니다. 일자가 모여있기에 다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날이 다일의 날인 또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최일도 전도사 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이웃, 나흘을 굶고 길바닥에 쓰러져 힘없이 누어져 있던 함경도 할아버지에게 따스한 설령탕 한 그릇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일공동체는 이 설령탕 한 그릇의 나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진지를 나누는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데일리다일 정회원들과 발기인들은 데일리다일을 창립하는 다일의 날, 청량리 밥퍼에 모여 밥상공동체 식구들에게 따스한 밥과 국을 퍼드리는 일로 데일리다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1월 11일 발기인과 정회원 111명이 함께 밥을 퍼드리는 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한 데일리다일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사랑의 밥을 퍼드리고 가난한 이를 돌보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밥을 푸는 데일리다일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에 통로가 되는 데일리다일

매일매일 전세계 어린 생명들을 키워나가는 데일리다일

매일매일 다함께 일하는 데일리다일

데일리 다일이 최고야!

데일리 다일 창립총회

2017년 11월 11일, '사단법인 다일인터내셔널 다일공동체 데일리다일'이 창립되었습니다. '데일리다일'은 외교부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해외 빈곤층에 대한 의료, 선교, 문화, 보건,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나눔과 섬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단법인 데일리다일은 밥퍼 나눔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들은 다일공동체의 근거지인 청량리 쌍굴다리 옆 밥퍼나눔운동본부에 모여 식사 준비와 배식을 도왔습니다. 사단법인 창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밥퍼 봉사 이후 이어진 창립 감사예배에는 민병두 국회의원, 이계안 전 의원, 김인호 서울시의원, 박정숙 방송인,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상원 홍보대사, 박종삼 전 월드비전 회장을 비롯한 70여명의 발기인 및 대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역사적인 사단법인 출범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의 2부는 사단법인의 이사로 위촉된 박선규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회가 선언되고,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최일도 다일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인사말과 발기인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경과보고, 격려사 및 축사, 의안상정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사단법인의 이사장에는 최일도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명예이사장에는 박종삼 전 월드비전 회장과 오성춘 장신대 교수를 포함한 11인의 이사와 김용정 변호사와 2인의 감사가 위촉되었습니다. 최일도 이사장은 위촉된 이사 및 감사진들에게 기념스톡을 전달하며 사단법인 출범의 감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발기인과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 111명의 이사진과 함께 출범하는 데일리다일은 차후 해외 빈곤 지역의 의료, 선교, 문화, 보건, 교육지원 및 재난구조 등의 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데일리다일'의 구체적 사업은 1) 해외 재난 구조 및 자원봉사 지원 사업 2) 해외 무상급식 및 의료 지원 사업 3) 보육원,

고아원, 학교 등의 교육 지원 사업 4) 지구촌 빈민지역의 의료 선교, 문화, 보건교육 지원 사업 5) 국제 구호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세미나, 교육과 훈련원 지원 사업 등입니다. 주로 빈민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밥퍼(급식), 꿈퍼(교육), 헬퍼(건강) 지원사업을 이전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는 '다일복지재단'이라는 새로운 법인명을 가지고 그동안 진행하던 무료급식, 밥퍼와 다일천사병원의 의료지원 사업과 더불어 국내의 노인과 노숙인 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더욱 전문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대한민국의 노인문제에 대비하여 웰다잉 하우스,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더욱 전문적인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과 함께 출범하는 사단법인 '다일인터내셔널 다일공동체 데일리다일'을 기억해 주시고 향후 행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① 사회를 맡으신 박선규 이사

② 사단법인 이사님들에게 기념스톡을 직접 걸어주시는 최일도 이사장

후원회원님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발송일시	구분	후원금 공제범위
1월 중 요청자에 한하여 우편 발송	개인 (주민등록번호)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 공제 (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내에서 전액 공제

다일공동체 연말정산 안내

Q & A

- Q** 다일공동체에 후원한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일공동체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개인이나 법인명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기부금 영수증은 타인 명의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법인단체 명의로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금 입금자명과 후원자 본인의 명칭이 동일해야 합니다.
 (단체 명의로 입금 시 개인별 명의로 분할하여 발급 불가합니다.)
- Q**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작년에도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월 공제를 통해 올 해 기부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절약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8년도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하여, 요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발송해드리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절감된 비용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1 우편물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등록된 분에 한해 2018년 1월 15일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 2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dail.org)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후원내역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고유번호증 발급



거리에서 드리는 서른번째 성탄예배

삼십년전 차디찬 길바닥에서 세명의 노숙인들과 함께 청량리 588의 작은 골목 귀퉁이에서 손을 마주잡고 함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던 쓸쓸하고 작은 예배의 시작이 거리 성탄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새 그로부터 삼십년이 지난 지금 많은 봉사자들과 도움의 손길로 2500명 거리의 천사들께 드릴 방한복 선물과 따뜻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삼십년 간의 거리에서 드린 예배에 이어진 운영의 손길들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추운 겨울을 날수 있는 방한복을 해마다 지급하였으며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거리성탄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올 해도 빠짐없이 사랑의 방한 키트 모금에 응해 주신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에 이 한겨울 추위를 이겨낼 따뜻한 방한키트를 함께 하신 모든 거리의 천사분들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겨울엔 부디 단 한분도 길에서 동사로 사망하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서른번째 거리 성탄예배는 최일도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하신 김갑수 문화체육부 종무실장님의 가슴 깊이 와닿는 축사와 민병두 국회의원과 수년간 다일과 함께 해오신 이계안 협력대사님의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이 더욱 빛났습니다. 다함께 이천년 전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찬양으로 더욱 의미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올해 거리성탄예배 도중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 중 헌금시간에 갑작스럽게 한 어르신께서 일어나서 강단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가진 게 이게 다예요" 하시며 만원 지폐 한 장, 천원 지폐 두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받기만 하니 괴로운 데 드릴 거라고는 이게 다라서 하시며 눈물을 훔치시는 어르신의 헌금으로 단 위에 있는 내빈이나 이를 알아차린 무의탁 노인들은 잠시 숙연해 졌습니다.

이 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면목동에 사시는데 노령 연금을 아끼고 모은 돈 12000원이라 했습니다. 제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야길 다 들은 민병두 의원과 유덕열 구청장님도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이야길 들으신 유덕열 구청장님은 이 어르신 같은 분을 위해 매일의 무상급식을 아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밥퍼를 무료급식소라고 알고 계시지만, 밥퍼는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께서 자존심 유지비로 100원 짜리 동전 하나라도 내고 밥을 사서 드시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마저도 못내고 드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이분들의 정성어린 자존심 유지비가 모여 필리핀 까비떼에 다일공동

체가 설립되었고, 까만시 수상 빈민촌엔 까만시 다일교회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십원짜리 9개, 50원 동전이 15개..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 하시고자 주머니에서 작은 정성을 보태시는 분들.. 한참을 서서 기도하셨던 어르신의 마음과 한 마음으로 십시일반에 동참한 어린 자원봉사자들까지.. 귀하고 귀한 그 정성들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로 수고하신 300여명의 학생 자원봉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십시일반 물질적 정성뿐만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오셔서 모든 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남아 뒷정리까지 도맡아 주신 봉사팀의 헌신과 사랑에 마음 깊이 감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따뜻한 월동 키트를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받아가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에 오히려 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일공동체는 이 귀한 나눔이 이어지도록 더욱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어 가십니다. 작은 나눔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분들의 사랑과 마음을 늘 기다립니다.

후원 업체



자원봉사팀

경희 여직원회, 정신여고, 신일고, 염광고, 경희고, 서울대, 서울시립대, 가족 별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인으로 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남순남님을 비롯한 많은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년간 천사병원과 작은천국 주방을 섬기시다가 퇴임을 하시게 된 남연옥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쉬움도 많았지만 지난 시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떠나는 순간이 홀가분 하다고 말씀하시는 권사님과의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섬김, 따스한 열정

다일천사병원과 작은천국과 함께 하게 된건 언제부터인가요? 함께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02년 10월 4일에 다일천사병원이 개원했잖아요, 개원하고 12월 24일쯤인가 그 때 제가 들어왔어요. 친구가 다니던 다일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면서 자원봉사로 밥퍼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다일교회에 왔을 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구역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밥퍼봉사를 하는데 당시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동안 해왔던 교회 봉사의 틀을 깨는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병원에서 하는 자원봉사자 교육도 받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자원봉사 교육을 수료하고 재밌게 다녔죠. 그렇게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다녔는데 하다 보니 더 깊게 봉사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밥퍼에서 오랜기간동안 봉사하시던 장로님이 편찮으시게 됐고 저에게 밥퍼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순종하게 됐어요. 시행착오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재밌고 즐거웠어요. 더 잘하고 싶어서 요리학원도 다니고 신이 나서 했어요. 돌아보니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네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해서 사실 순종밖에 한 것이 없어요.

다일천사병원과 작은 천국에서 함께 하시는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봉사자

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최근에 같이 봉사했던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려면 용인에서 온 최수진이라는 봉사자가 있었어요. 보통 함께 일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같이 많이 나누는데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면서 작은천국의 정기봉사자로 2,3년동안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해주셨어요. 남편분과 함께 쌀 후원도 해 주시고 간간히 환우분들 위해서 먹을 것도 사서 보내주시고, 유학중인 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같이 와서 봉사도 하고. 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고, 함께 신앙적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랬던 것들이 참 기억에 남아요.

이런 정기 봉사자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시는 입소자분의 사연이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참 많죠. 특히 한 부부가 기억에 남는데 중국 교포분들이셨어요. 남편분이 뇌출혈로 마비가 온 후에 정말 극한 상황에서 입소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시니까 아내분이 일도 못나가고 여기서 함께 간병을 하게 됐는데, 그 아내분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감사해 하면서 마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마지막에 각막 기증까지 하고 가신 임환자분인데, 여자분이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해드리는데 본인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천사병원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모든 사랑을 다 받고 가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커다란 눈에 눈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그 눈망울이 잊혀지질 않아요.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그리고 봉사자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가 더 컸어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는 예수님처럼 비춰졌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받은 게 더 많더라구요.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신가요?

(때로는 반복되는 일이나 어려움도 있으셨을텐데요)

사실 순간순간 어려울 때도 참 많았어요. 가끔 봉사자도 없고, 혼자 일하다 벅차고 힘들 때는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든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했어요.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현장 스태프들, 직원 분들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했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전 못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그렇게 들으시는지.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이 여기저기 만지시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새벽에 식사 준비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이 제게는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일 시작하면서 찬양을 틀고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런 영적인 공급이 이 시간까지 오게 해준 것 같아요. 결국 기도와 말씀의 힘이었어요.

지난 시간을 다일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여러 생각과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천사병원과 작은천국에서 일하시면서 권사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의 변화인가요?

많이 변했죠. 이전에는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어요. 다일에서 있다보니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게되고, 계속해서 배우고 싶은 열정도 생기더라구요.

요리도 배우고, 여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도 배우고.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식품영

양까지 공부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다 보니 내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저로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배웠어요. 원래 제가 성격이 불같고 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다스려졌어요. 많이 같고 닦여졌죠.

권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눔과 섬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나눔과 섬김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따뜻한 정이 그리워서 외로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힘든 사람보다 더 많잖아요? 자원봉사자분들도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외롭고 힘들 때 가식 없이, 각자의 모습대로, 처해 있는 환경대로, 같이 손잡아 주고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게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정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 그게 나눔과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다일공동체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일공동체에 꼭 전하고 싶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한다는 것도 조금은 벅차고 몸에 무리도 오고해서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일공동체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NGO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단체다. 저런 NGO라면 나는 기부하고 싶어.' 할 정도로. 목사님, 사모님 모두 참 사랑하고, 존경하구요.

내가 사랑하는 다일이 정말 더욱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는건 그거예요. 다일공동체가 처음 지어졌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세워져 나가길. 저는 다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결국 모든 것이 일체 은혜 감사입니다. 다일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新年快乐"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며 중국다일공동체로
다시 새로 시작하는 중다일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다해
감사 인사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중국다일공동체 애심회

중국다일공동체는 다일어린이집을 훈춘시 정부에 이양하며 각종 집기들, 사용하던 봉고차까지 모두 아이들을 위해 기증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일 어린이집 문을 닫으며 졸업생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다일공동체에서 기증하신 아파트 2채, 이곳을 가장 먼저 중국 다일공동체의 새 동지로 꾸미고 있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 2채는 다일 애심회라는 이름으로 한 채는 게스트 하우스 겸 형제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한 채는 중다일 오피스 겸 자매들의 숙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국다일어린이집 단기봉사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1년 혹은 반년씩 중다일에서 봉사하셨던 삼촌, 이모들이 뜻을 모아 후원을 해주셔서 침대와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외지로 나간 큰 아이들의 개인 짐도 다 옮겨놓고 언제라도 돌아오면 어색하지 않고 따뜻함이 묻어나도록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 사진들도 붙여 놓았습니다.

먼저 훈춘 현지에서 생활하던 다일어린이집 졸업생 미용사 야오쭈양, 직업고중 러시아과 3학년에 재학중인 왕하이타 오가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곳은 졸업생들의 독립을 돕는 공간이요, 외지의 큰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아이들의 집이요, 이제는 졸업생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사단법인 다일애심협회를 준비하는 사무실로 의미있고 아름답게 사용될 것입니다.



1 중다일애심회(6층 2채)

훈춘시 아동 복리원 지원

14명의 아이들을 훈춘시 아동복리원으로 보냈지만, 중다일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의 생일에는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케익을 준비해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교육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지내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의 정서지원을 위해 특별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을 시작으로 중다일에게 보여주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다일의 새로운 발걸음을 따뜻하게 응원해주십시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② 중다일애심회(사무실) ③ 다일 교육지원후원금 전달(대표 림예하)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새 학기, 새로운 교복을 입으며

샬롬!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캄보디아는 8월부터 10월까지 긴 방학을 마치고, 11월에 접어들며 학교가 개학하여 아이들이 본격적인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방학 기간동안 우리 나라의 여느 아이들처럼 친척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혹은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등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우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개학을 하면서 집을 이사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일전에 센터에서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들도 밥퍼에 하나 둘 발걸음을 옮겨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아이들이 센터에 모여 저마다 삼삼오오 친구들과 함께 떠들고, 웃고, 뛰노는 소리로 센터는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얼굴들이 빛나고, 고운 목소리들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10월,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복을 나누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저마다 훌쩍 커서 교복을 나눠주기 위해 사이즈를 재는 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게 컸구나, 하는 마음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놀라고 행복해 했습니다.

새하얗고 예쁜 교복을 입어 보며 아이들은 저마다 들뜨고 행복한 표정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한 학기를 보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들이 센터에 많이 방문하면서 아동결연을 문의하거나 희망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모아주시길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① 새 교복을 입고 인사하는 아이들 ② 최고야를 외치는 신학기를 맞이한 아이들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꽃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들

밥퍼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들께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해 드리는 분들의 섬김이 참으로 귀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2013년도부터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학생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대.청.밥은 베트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대.청.밥 학생들의 밥퍼활동은 학생들의 헌신적인 참여 덕분에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중 학생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위해 온전히 그 시간을 내어놓는 학생들의 마음과 얼굴이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1월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베트남과 가까운 나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지부로 나눔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밥과 빵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게임도 하고, 한명 한명과 눈을 맞추며 어우러지는 시간을 통해 하나됨을 배워보려 합니다. 3박 4일이라는 일정 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기를,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바꾸지 못할 이 시간들이 나눔여행에 참여했던 대.청.밥 학생들의 삶에 멋진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랍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 문의 02-2212-8004
-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1 대청밥 나눔여행 포스터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날!

모두가 기다리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찾는 이웃들을 위해 사이공드림교회에서 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탄절이 무엇인지 그 의미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이공드림교회에서 준비해주신 선물을 통해 "기쁜날" 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선물이 주는 기쁨도 이렇게 큰데 우리 인생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주신 사이공드림교회 신주헌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② 사이공드림교회 이선경집사님 ③ 사이공드림교회 권사님, 집사님



필리핀 PHILIPPINES

류주형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기다려지는 하루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모든 까만씨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마지막 주가 되면 토요일이 되기도 전에 월요일부터 아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코리안 스튜던트 와요?"

"코리안 스튜던트 언제 와요?"

세부에 처음 발을 딛고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지금의 까만씨 다일커뮤니티 센터가 세워 지기도 전부터 매달 한번씩 세부의 MJ아카데미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찾아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 하다가 주말이 되면 당장이라도 세부의 푸른 바다로 뛰어가고 싶겠지만 이른 아침부터 까만씨 빈민촌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습니다.

서른 다섯명의 학생들이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기뻐하는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율동과 찬양으로 몸을 풀고 임무를 배정합니다. 건장한 남학생들은 마을 입구 광장 청소를, 나머지는 까만씨 교회에 남아 절반은 빵만들기에, 절반은 피부병이나 눈병,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찾아 약을 발라주는 의료봉사에 배치되어 섬깁니다. 이날은 또 특별히 하나로교회 신민성 집사님 가정이 함께 오셔서 레크레이션 전공을 살려 아이 한명 한명에게 풍선을 불어 멋진 별룬아트를 선보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짬이 생기는 학생들은 미리 준비해 온 비누방울을 불며 아이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은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 통에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함께 뛰어다니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봉사를 마칠 때쯤 MJ여학원의 양혁 원장님께서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매달 와서 봉사만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까만씨 마을에 또다른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세 명을 추천해 주시면 대학까지 장학금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여학원에 취직을 시키기도 하고 싶습니다."



①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는 봉사팀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까만씨 모든 아이들이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역시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기에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구나 감탄이 되었습니다.

MJ아카데미는 까만씨 다일공동체의 첫 정기 봉사자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하루이니 아직 29일이 비어 있습니다.

세부에 사시는 여러 분들과 혹 세부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한 달에 하루, 혹은 세부에 방문하시는 기간 동안 하루, 그 하루가 까만씨의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 하루가 되도록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한 아이, 그 아이로 하여금 까만씨 모든 아이들의 모델이 되도록 지원하는 기회를 가져 보시는 것 또한 어떠실런지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까만씨로 향하게 되고 까만씨 아이들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향하게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네팔 NEPAL

부번 팀시나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저이며시! 부번팀시나 원장입니다.

1999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서 일하던 중 몸이 아파 찾게 된 다일천사병원을 통해 다일을 만났습니다. 이후 청량리밥퍼에서 어르신들과 밥을 먹으며 네팔에도 이런 밥퍼가 빈민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일공동체와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 네팔에 다일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11일 네팔다일공동체 원장으로 발령받아 가족들과 함께 포카라에서 오는 길에 지나간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포카라다일공동체 구샬 지부장님과 백수진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빈민촌 겨울나기용품 담요, 옷, 장갑을 보내주세요"

밥퍼센터가 있는 카트만두의 12월은 평균 최저기온이 3°C, 평균 최고기온이 19.4°C로 16.4°C의 매우 큰 평균 일교차를 보입니다. 태양이 떠 있는 낮은 따뜻한 봄 날씨이지만 밤이 되면 밥퍼센터가 있는 마느하르빈민촌은 난방기구 하나 없이 천막과 양철로 만든 집에서 긴 겨울밤을 보내야만 합니다.

아침이면 밥퍼센터 앞에 웅기증기 모인 아이들은 차가운 손을 부비며 따뜻한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담요와 장갑을 보내주세요."

"따뜻한 옷을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가난하지만 천사같은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① 김용덕장로님부부와 결연아동 떠니사와 함께

의료봉사로 섬겨 주신 김용덕 장로님 부부!

매년 해외의료봉사를 하고 계신 김용덕 병원장님(김외과)은 이번에만 60세 생일을 맞아 휴양지로 여행을 가시려고 하다가 사모님과 함께 네팔에 의료봉사를 오셨습니다.

"도와줄 것도 능력도 없지만 받은 은혜 조금이나마 되돌려 주고자 의료봉사를 한다"는 김용덕장로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막내와 자매결연을 맺어준 떠니사 구월도 만나 "내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친자식과 같이 마음으로 낳은 딸이다"라며 안아주시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신 김용덕 장로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우간다 UGANDA

변창재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Out-of-School Children Project

무상교육인 정부초등학교조차도 다니지 못해 교육에서 소외되고 멀어져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동들이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이런 아동들을 위해 이미 네팔과 탄자니아에서 호프스쿨 및 호프클래스를 실시하여 일정의 교육 수준까지 끌어 올린 후 다시 학교로 재입학 시키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간다에서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행정체계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밥퍼센터가 위치한 인근 마을(키티코, 무통고, 비롱고)의 1차 행정책임자 'LC1'을 만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공정한 지역아동 대상자 선정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깝고 유일한 정부초등학교인 키티코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가르쳐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과의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역할들을 잘 이해하고 이행, 협조할 것을 구두뿐만이 아닌 문서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학교 밖의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 보편적 초등교육을 받으며 우간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① 밥퍼센터를 가득 매운 학부모들



② 자신의 사진을 유심히 보며 찾는 아이들 ③ 결연후원물품 전달 ④ 협약서 싸인 후 단체사진

인식증진의 중요성

결연아동들에게 후원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에 비가 충분하지 않아 농산물 수확이 적어져서 주식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옥수수 가루 가격이 매달 널뛰기를 합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가게를 비롯하여 주변의 가게들을 돌아 보며 시장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센터에서 멀지 않은 도매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옥수수 가루와 식용기름을 구입하고 함께 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특별히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촬영했던 가족사진을 코팅까지 하여 전시하고 해당 아동에게 선물했습니다. 사진이 귀하고 사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사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학부모님들을 모두 오시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아동결연과 후원에 대한 정확한 뜻과 의미를 전달하고 다일공동체 십시일반의 정신에 대해서, 한국의 후원자 분들이

결코 경제적 여유가 있어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아동의 의무와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동의 인권 보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아동 노동 근절과 모든 폭력적인 환경으로부터 아동 보호, 아동의 의사존중 등 학부모의 의무와 매일매일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에 충실히 임해야 하는 학생의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보호자들 모두 집중하여 듣는 모습을 보며 인식증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 우간다 다일공동체 +256-77107-2382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① 마음과 뜻을 모아 비전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도의 시간

다일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 복된 2018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는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맞이합니다. 한겨울인 한국과 미주에 계신 후원자님들께 탄자니아의 뜨거운 열기를 신년선물로 전해드립니다. ㅎㅎ

제4기 호프클래스 아동 36명은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르고 졸업합니다. 졸업생 중 35명은 일반공립초등학교로, 1명은 특수학교로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기 호프클래스 신입생 아동 40명은 2월 1일 입학과 더불어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호프클래스 5기 아동들에게 따뜻한 성원과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사역하는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은 정부 땅에 무허가로 지어진 집들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저희는 이 마을에 밥퍼센터를 개원해서 올해로 5년째 밥퍼와 빵퍼, 대안학교인 호프클래스, 일대일 아동결연사업, 노후주택보수 등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밥퍼센터에서 대안학교인 호프클래스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 마을을 배회하는 대다수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기술학교, 채석장의 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여성을 위한 미성교실, 방과후교실 운영과 마을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쿤두치 아이들과 주민들의 꿈과 비전의 실현을 돕기 위해 다일비전센터를 건립하기로 작정하고 몇 년 전부터 밥퍼센터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정부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쿤두치 채석장 마을을 올해부터 개발한다고 합니다. 개발이 시작되기 전 최소한 다일비전센터 지붕과 담장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일비전센터 부지가 정부 뜻에 따라 개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탄자니아는 3월부터 5월까지가 대우기철이라 그전에 건축을 해야합니다. 이에 후원자님들께 다일비전센터가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긴급기도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629-426-64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② 졸업시험을 치르고 있는 호프클래스 4기 아동들 ③ 다일비전센터 부지에서 다일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기도하는 아동들과 스태프들



미국 AMERICA

김고운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

미주다일공동체 소식

다일공동체 모든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신년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17년 하반기 미주다일공동체의 크고 작은 몇가지 소식들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에는 미주다일공동체 썬스기빙 특별 나눔행사가 있었습니다. 3년째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터키(칠면조 고기)와 햄 등을 나누며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썬스기빙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 볼 수 있는 아주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신 유재준, 이종호 대외협력 이사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더욱 더 반가운 소식은 지난 11월 23일~25일 북미주 몬트레이 영락교회에서 최일도 목사님의 치유를 위한 영성집회가 있었습니다. 썬스기빙 연휴가 있는 주이기에 많은 분들의 참석이 어려울까 염려 하였으나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어느 때 보다도 깨어있고 은혜가 넘치는 영성집회였습니다. 집회를 위해 애써주신 몬트레이 영락교회 조강운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도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틀란타의 미주다일공동체에서 지난 11월 28일 미주다일공동체, 종교법인 합동 정기 이사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자리에 함께 모인 미주다일공동체 이사님들과 미주다일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부 CBMC 5개 지회 모임에 최일도 목사님께서 강사로 초청 받으셔서 참석한 모든 CBMC 멤버들에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날 참석한 CBMC 멤버들 모두 다일공동체의 5가지 표어,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것부터! 할수있는것부터! 나부터 합니다!'를 함께 외치며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귀한 청지기로서 쓰임 받길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17년 한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에도 미주다일공동체가 귀한 축복의 통로로 지금처럼 아름답게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④ 미주다일 뽕스기빙 칠면조 등 식료품 나눔 ⑤ CBMC 강연



캐나다 CANADA

이형식 캐나다 다일공동체 원장

캐나다 다일공동체는 한국의 최일도 목사가 설립한 다일공동체를 모체로 2014년 9월 23일 캐나다 정부에 정식 등록되어,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건전한 후원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다일공동체 창립과 함께 후원에 앞장 선 캐나다 "토론토 영광교회"를 방문하여 담임 이요환 목사를 만난 소식을 전합니다.

토론토 영광교회는 "2850 John St. Markham, ON L3R 2W4"에 있으며 미주한인 장로회 캐나다 동 노회 소속으로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담: 토론토 영광교회 이요환 담임목사님

Q. 영광교회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토론토 영광교회는 1983년 현재 원로목사님인신 김인철 목사님과 4가정이 개척하여 지난 34년간 눈물과 수고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현재 저는(이요환목사) 2대 담임목사로 2005년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Q. 영광교회는 특히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선교정책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하는데 다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 닿는대로 이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로목사님이 은퇴 후 10년간 러시아와 알바니아를 섬기셔서 주 후원을 하였고,

아제르 바이젠 및 위클리프 선교와 채드를 돕고있으며 크고 작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동남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찬양대가 아이티등 중남미에 찬양사역과 고아원사역 전도사역등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 다일공동체 한 멤버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버선교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영어권에서는 "saturday breakfast" 등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Q. 캐나다 다일공동체가 설립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협력교회로 참여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A.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밥퍼 사역 및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일에 참여 하여 세계적인 선교 사역의 한 축을 굴리는데 큰 힘은 되지 못하지만 작게라도 섬기며 힘을 더하기 위해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캐나다 다일공동체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A. 밥퍼사역은 어느 나라에도 빈곤계층이 있기에 그 정신에 따라, 캐나다의 homeless 들을 위한 지역을 섬기는 사역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도들이 함께 몸으로도 사역하는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교회나 주변의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선진국이라도 이러한 밥퍼의 정신을 이 땅에도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하여 앞으로 캐나다 다일공동체의 밥퍼가 캐나다 전체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섬김의 정신적 모범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캐나다 다일공동체 +1-416-824-483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다일천사병원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한국개신교가 세운 최초의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의 아래 의료지원 봉사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대학병원 암센터 소장으로, 혈액종양학과 내과전문의로 계셨던 김성록교수입니다. 김성록교수님은 작년부터 금요일 격주 진료로 봉사해 오셨는데, 11월부터는 격주로 수요일에도 진찰을 해주고 계십니다. 환자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 가난하고 병든이웃을 위해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일천사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료 문의 다일천사병원 | 02-2213-8004

진료시간표

2017.12.01

오후(pm)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시 - 5시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1,3주)	가정의학과	내과(2,4주)
	산부인과			산부인과	
2시 - 4시		치과(2,4주)		치과(1,3주)	
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위내시경, 기타 필요한 검사는 의무원장님의 진단으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KOREA

최홍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김장과 거리성탄예배 준비

안녕하십니까? 밥퍼를 사랑하시는 후원자님들과 자원봉사자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섬김으로 따뜻한 밥퍼를 이루어 갈 수 있어서 감사뿐입니다. 밥퍼의 11월에는 김장이 가장 큰 행사이고, 12월에는 3천여명이 거리에서 드리는 거리성탄예배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밥퍼에는 월~토요일까지 매일 700여명이 찾아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김장을 따로 하기보다 두 주에 한번씩 김장을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김장철이 되면 제철로 속이 짝 차게 영근 배추와 양념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제 맛이기에 저마다 김장을 합니다. 올 해 밥퍼에는 크게 세 단체에서 김장김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경희초등학교, 올리브영, 서울고등법원의 김장봉사

경희초등학교(교장 강희창 선생님) 동산클럽에서 제15회 사랑의 김장을 하여 23박스의 김장 김치를 후원해주었습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초등학생들이 담근 김장김치를 가지고 와서 박스를 옮겨 전달해 줄 때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콧등이 찡해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밥퍼에서는 36개월 이상이면 누구든지 자원봉사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하며 모든 세대의 나눔과 섬김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와서 함께 식재료 다듬기를 하고, 밥 먹으러 오시는 어르신들께 숟가락을 나누어 드리며 밥퍼 봉사를 합니다. 어릴 때 새겨진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하기에 어린이들의 봉사를 기쁘게 영접하여 함께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헬스 뷰티케어 전문샵, 올리브영 매장의 직원들이 배추 100포기와 알타리무 10단을 밥퍼에 가지고 와서 다듬고, 씻고, 절구고, 속을 집어넣으며 맛있는 김치를 담가주셨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 우면누리자원봉사단에서 담근 김장김치 52박스를 전달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일체은혜 감사뿐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밥퍼에 달려와서 봉사해주시고 전해주시는 올리브영과 서울고등법원 우면누리봉사단, 그리고 경희초등학교의 동산클럽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나누고 베푼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됩니다!



①② 서울고등법원 우면누리자원봉사단



③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후원한 경희초등학교 동산클럽 학생들

④ 김장김치를 나르는 경희초등학교 학생들 ⑤ 절인 배추를 씻고 있는 올리브영 봉사팀

두 번째 이야기, 서른 번째 맞는 거리성탄예배

밥퍼에서 갖는 많은 행사 중에 연중 가장 큰 행사는 3천여명이 거리에 모여서 함께 성탄축하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리성탄예배는 밥퍼를 시작한 그 해 겨울에 함께 밥을 나누던 밥상공동체 가족들 중에 교회에 찾아가서 성탄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쫓겨나서 드리지 못하고 돌아온 세 명의 노숙자와 함께 드린 것입니다. 그 때로부터 해마다 거리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탄절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해는 성탄예배를 거리에서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노숙자, 무의탁 노인, 쪽방촌의 어르신들에게 겨울을 이겨 낼 수 있도록 방한복과 양말, 장갑, 도시락과 생수 그리고 간식을 담은 월동키트를 선물해드렸습니다.

많은 단체와 기업, 그리고 개개인들이 아름다운 나눔을 실

천하는 사랑을 모아서 풍성하게 나누고 누리는 거리성탄예배를 드렸는데, 올 해는 특별히 한국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뿐 아니라 세계 10대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인 네팔에 세우려고 하는 고아원을 위해서 이 정성이 값지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구유에 누어있는 아기예수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자신들의 보배함을 열어서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들의 보배함을 열어서 거리에 있는 가난한 분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대한민국 KOREA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①② 파주헤이리마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노랑미술 여행 박물관 야외수업' 진행

노숙인요양시설 다일작은천국에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17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받아 입소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자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미술재료 탐색을 통해 미술작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서양화 작품과 동시에 HTP(투사)검사를 실시하여 한 대상자를 심리파악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술심리프로그램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기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다일작은천국 3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에는 15회기로 진행되는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노랑미술 박물관 야외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로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참석하신 분이나 입소자 중 거동이 원활하신 분으로 선별하여 11월 24일로 파주예술마을 안에 위치한 '노랑 미술여행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노랑미술 여행 박물관의 오성환 관장님께서 한 시간 가량 작품설명을 해주시면서 참석하신 입소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까지 유익한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이어서 콘드레비법당 정식으로 대상자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이대이(가명)어르신은 "항상 강사님이 한 시간 일찍 오셔서 프로그램 준비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실내에서만 진행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술관도 데려와주시고 밥까지 함께 먹어서 강사님들, 입소자들과 함께 보낸 좋은 시간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야외수업을 통해서 문화활동과 가을단풍을 구경하면서 심적 안정을 취하고, 입소자 어르신들이 혼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유명관광지를 방문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숙인요양시설이라고 항상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우울해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소자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제공해드리고 발전 해 나아가는 다일작은천국이 될 것 입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다일작은천국

02-2213-8004



③ 작품설명을 듣고 있는 입소자분들 ④ 노랑 미술여행 박물관에서

십자가의 길로 떠나는 하루 순례

십자가의 길 묵상은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기도수련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사건, 부활이 각 장면별로 구성된 순례기도입니다. 각 장면 안에 묵상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느껴보고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다일공동체 십자가의 길은 성서를 기반으로 가장 전통적인 십자가의 길 14처로 구성하였고 박창용 작가님의 1년이 넘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찾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삶 속에서 예수의 수난과 부활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십자가의 길과 함께 이어지는 프로그램 소개

진지알아차리기

다일공동체에서는 식사시간이 없습니다.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단순히 밥을 먹어 치우는 "식(食) + 사(事)"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진지하게 우리를 위해 자기자신을 내어준 진지들을 만나고 그 진지들과 대화하며 진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인의 수고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진지알아차리기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꽃차와 함께하는 영적상담

설곡산 다일공동체는 사시사철 꽃이 피는 꽃동산입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이 꽃들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따고 닦고 말리고 잘 담아서 많은 이들이 이 꽃을 오래오래 즐길 수 있도록 꽃차를 대접해드립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따스한 차를 함께 나누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다일공동체 사역 소개

설곡산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로 순례를 오신 분들은 누구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함께 오신 분들과 따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면 갈보리 채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연락처와 찾아오시는 길

설곡산 십자가의 길로 떠나는 하루 순례는 하루 동안 기독교 전통 묵상수련인 십자가의 길과 예배, 진지알아차리기와 꽃차 나눔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방문을 원하시는 분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조율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설곡산 다일공동체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 전화 031-585-2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원장 김지훈 010-3671-8014

이메일 sgdail2@gmail.com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밥퍼나눔운동본부



삼육보건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학생들이 밥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삼육대학교 20명의 학생들이 어르신들 치매 선별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어르신들을 안내하여 1:1 질문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어르신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검사하고 양말과 핫팩을 준비해 와서 검사를 마친 어르신들께 나눠 드리며 따뜻하고 뜻깊은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눔과 섬김을 더 많이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의료인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경찰면접팀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마지막 경찰 최종면접을 앞두고 밥퍼를 찾아왔습니다. 시작부터 힘차게 시작하여,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봉사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되어 꼭 다시 만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밥퍼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강의가 없어 쉬는 날에도 밥퍼를 찾아와 나눔과 섬김의 봉사를 실천해주셨습니다. 배식 전 장신대학교 학생들 모두 나와 노래하며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인사와 웃음으로 섬겨주셔서 포근함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꼭 다시 만나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베트남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 분들이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산넘고 바다건너 머나먼 곳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방문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밥퍼에서 구슬땀까지 흘려주셨습니다.

빠듯한 일정 중 주변을 돌아볼 줄 아시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분들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베트남을 방문하실 때마다 밥퍼를 찾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간다



RTC 이동해+김은희 선교사님

'RTC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레인보우 몬테소리 유치원'을 통해 올바른 양질의 교육을 보급하시는 이동해 선교사님, 김은희 선교사님 부부께서 키티코 초등학교와 키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수요일에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리차드 목사님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에서 식사과정을 마치고 고국 우간다로 돌아와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리차드 목사님이 자원봉사를 오셨습니다. 청량리 밥퍼에서도 굵은 땀방울을 흘렸는데 우간다 밥퍼에서도 귀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작은천국

쌍용양회

쌍용양회 직원분이 다일작은천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항상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다일작은천국에 봉사 오시는 쌍용양회 직원들은 다일작은천국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해 오십니다. 이번에도 입소자 어른들이 계시는 곳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도구들을 준비해오셨습니다. 가져오신 청소용품으로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모습을 보며 쌍용양회 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직원 분들이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다일작은천국에 후원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항상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봉사오기가 쉽지 않은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계단부터 입소자실까지 청소를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든든해 보였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다일작은천국을 생각하시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화이팅!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단체팀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왔습니다.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는 컨벤션 스마트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참된 여성 인재 양성의 건학 정신과 한국의 MICE 산업을 주도하는 컨벤션 전문 기획가를 꿈꾸는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떨지 않고 중창을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보였습니다. 끝날 때도 다시 봉사 오고 싶다는 말을 배우고 간다는 학생들의 말에 직원들이 또 한번 감동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일작은천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다일공동체를 방문하신 손호진님

지난 11월, 손호진님께서 2주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시어 사랑의 손길로 밥퍼를 섬겨주셨습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밥퍼, 빵퍼 봉사과 더불어 의상디자인을 전공하신 경험을 살리시어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대안생리대 사업 진행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캄다일을 섬겨주심에 감사가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DB생명

총 5회에 걸쳐 DB생명 직원 분들께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시어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프놈끄라움 센터에서 "굶은일은 다 맡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넘치는 활기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밝혀주시고, 밥퍼와 빵퍼를 위한 후원자의 손길도 더해 주신 DB생명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뽀레야 예수!



사랑빛 교회, 프놈펜 좋은 학교팀 방문

한국에서 사랑빛 교회가 프놈펜 좋은 학교와 함께 밥퍼 봉사를 오셨습니다. 준비해 오신 색종이와 종이로 종이접기를 하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따뜻한 밥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봉사자 식사까지 모두 나눠 주시고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밝게 웃으시며 괜찮다고 해 주셔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가실 때도 배식비용을 후원해 주시고 가신 사랑빛 교회와 프놈펜 좋은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홍콩 감리교회

홍콩 감리교회팀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올해만 4번째 방문이신데요. 올해 스피커 후원, 벽화, 노트북 후원 등 물품구매 비용과 배식비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오셔서 밥퍼 배식비도 후원해 주시고 밥퍼, 빵퍼 위생봉사에 참여하시고 가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홍콩 감리교회가 최고야!!

필리핀

신민성 집사님

세부 하나로 교회 신민성 집사님께서 까만씨에 방문하셔서 아이들에게 풍선아트 봉사를 하셨습니다. 백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시면서 풍선으로 강아지, 꽃, 장검검 등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동심에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부 MJ아카데미

11월에도 어김없이 세부 MJ 아카데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까만씨로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한편에서는 마을 청소를, 한편에서는 빵 만들기를 하고 특별히 눈병이나 피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까만씨 다일공동체의 첫 정기봉사팀, MJ 아카데미가 최고야!!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정기후원 회원명단 2017. 10 ~ 11

(주)벨엘메모리얼파크, (주)신한은행 신답지점, (주)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 JIN ZHENSH, 강인숙, 강정만, 거암교회 청년부, 고미주, 고범수, 구미향, 구자배, 국군중앙권사회, 권상만, 권재우, 기쁨이 넘치는교회, 김경희, 김경희, 김광자, 김국현, 김기영, 김길남, 김동일, 김민기, 김민지, 김서원, 김선희, 김성국, 김성희, 김소희, 김수임, 김승일, 김신아, 김양, 김연홍, 김영희(정신과), 김예슬, 김원규, 김유이, 김윤숙, 김은경, 김재성, 김재원, 김재희, 김중희, 김준우, 김지윤, 김채형, 김현정, 김형철, 김혜민, 김혜자, 김혜진, 꽃대지꼭지님, 남보라, 남상현, 남종완, 노선희, 노성일, 노혜영, 도도유치원, 땡큐커리어이벤트, 류성원, 류시재, 마더랑치킨, 목정미, 문일석, 민영동, 박강우, 박선미, 박성덕 박영남, 박영숙, 박정아장충단교회, 박정인, 박호현, 배유정, 백석신대원2학년A반, 베이직교회, 베트남연수, 사랑의 방한복, 서경원,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서원교회, 서인석, 서호준, 석창영, 성동광진교육지역청, 세진특수, 송애란, 송우주, 송원석, 송정엽, 신경희, 신문숙, 신수정, 신월제일교회, 신중화, 신지영, 알파산악회,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주식회사, 여수성은교회, 오광춘, 오정란, 오지현, 오희승, 요셉의 사람들, 우체국 영리한, 원권연, 유미경, 유병규, 유승욱, 유승완, 유옥희, 윤연주, 윤정, 의료법인홍영의료재단, 이경숙, 이경희, 이금화, 이상도, 이서현, 이선미, 이수경, 이승열, 이양희, 이영숙, 이원근, 이유라, 이유순, 이은지, 이은지, 이종원, 이주연, 이주영, 이지혜, 이춘례, 이하나, 이호강, 익산샘물교회, 임영미, 임종동, 임한식, 장간, 장동철, 장미진, 장인숙, 재단법인 DB김준기문화재단, 전경화, 전수정, 정광재, 정인섭, 정주현, 제세영, 제일평화교회, 조경선, 조병우, 조양례, 조윤영, 조은경, 조은별, 중부교육지원청, 지상익, 지은실, 진웅섭, 차명선, 차은경, 최성희, 최순권, 최이레, 최필연, 하늘사랑교회, 하이플러스카드(주), 하태순, 한동필, 한상원, 한양대83, 한전산업 나누리 사회봉사단, 허정원, 홍은지, 화인시스템(주), 황규인, 황봉미



밥퍼나눔운동본부 신규후원 내역

2017. 10.16~12.15

후원금

강성진, 강인숙, 마더랑치킨, 고경택, 곽정숙, 권현경, 김동완, 김병윤, 김수진, 김원규, 김은경, 김지윤, 김태희, 거암교회, 농협지재부, 박영숙, 박정인, 박진숙, 베이직교회, 백기호, 서울시교육청시설관리, 세진특수, 송정엽, 신일교회, 신월제일교회, 신현희, 양혜진, 오정란, 이승열, 이윤정, 장혜련, 조양례, 주성식, 알파산악회, (사)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후원물품

서울고등법원(김치), 숭실대문화협동조합(배추), 올리브영(김치재료), 황수천(배추)



다일천사병원

2017. 10. 16 ~ 12. 15

후원물품

동국제약㈜, 싸이러리의약품지원본부, 종근당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네팔

2017.10.16 ~ 12.15

후원금

박종명, 부번팀시나,
소망교회 이문규,
제천제일교회 양익열목사,
Livingstone school, World race

후원물품

소망교회 이문규
(어린이 영양제, 양말)

탄자니아

2017.10.16 ~ 12.15

후원금

박시현, 이해명, 서울가든

후원물품

송금영 주탄자니아 대사 (쌀 100kg)

베트남

2017.10.16 ~ 12.15

후원금

A PLUS, LOTTERIA,
NAHAL(9,10,11,12월),
POSCO DAEWOO INTERNATIONAL,
권민혁님, 기업은행, 대장금,
박이영님,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산상선,
오희승님, 참조은광성교회,
호치민중앙교회

후원물품

ARTISAN[빵],
E-VIET SOLUTION[쌀],
명희경님[속옷],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쌀, 성탄절선물 SET],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쌀, 초코파이],
오희승님[옷]

미국

2017.10.16 ~ 12.15

후원금

Choong Kim, Mija Kim,
Mi Yea Lee, Kyung Soo Jang

후원물품

AlphaSolution

캄보디아

2017.10.16 ~ 12.15

후원금

DB생명,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과정,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김현자, 대박, 박재홍, 박재홍님 모친,
박종수 장로, 사랑빛 교회,
서울 광진상공회, 손병윤,
손영섭·손호진, 수원YMCA, 이병규,
프농펜 좋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홍콩감리교회

후원물품

[식료품]
두산전자, 무명, 사이공 스타
[의류 및 신발]
강릉시 중앙동 주민자치 위원회,
두산전자, 사이공 스타
[학용품]
Doosan Electro co,
강릉시 중앙동 주민자치 위원회,
두산전자
[잡화]
강릉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필리핀

2017.10.16 ~ 12.15

후원금

류호열·정명해,
예들중창단, MJ아카데미

후원물품

류호열·정명해[세탁기, 진공청소기],
이성일[의류],
MJ아카데미[의류, 학용품 등]

우간다

2017.10.16 ~ 12.15

신규후원

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

후원물품

이정웅(어린이 영양제 100박스)

후원 안내

정기후원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 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
아이들의 양육을 돕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다일천사회원이 되어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천사기업(월 10만원)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후원입니다.



천사교회(월 10만원)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다일평생천사회원이 되어
설곡산 다일공동체 프로젝트 및
국내외 다양한 다일 사역을 지원하는
평생가족 후원입니다.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061119794
계좌번호: 1510014622
예금주: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Bank of america
예금주: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061000052
은행주소: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주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후원계좌

은행이름: Td Canada Trust Bank
은행번호: 5222930
계좌번호: 13542
Inst. No: 004
OM M6N 4x7, CANADA
예금주: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후원계좌

예금주: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예금주: 다일작은천국
우리은행 1005-801-848969

다일복지재단 후원 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 | | |
|---|---|---|
| <input type="checkbox"/>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1:1 해외아동 결연
월 3만원 _____ 명 | <input type="checkbox"/> 쌀 10kg
월 3만원 _____ 구좌 |
| <input type="checkbox"/> 천사기업
월 10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천사교회
월 10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 _____ 원 |

일시후원

- | | |
|---|---|
|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
| <input type="checkbox"/> 다일아너스후원 1구좌 1억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원 |

후원회원 정보

- | | |
|--|---|
| 이름 | 주민등록 앞 번호 |
|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SMS 수신 동의 |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신 동의 |
| 주소 | <input type="checkbox"/> 우편물 수신 동의 |

CMS 자동이체 동의서(정기후원에 해당)

- | | |
|---------------|---|
| 출금은행 | 예금주 |
| 계좌번호 | 이체희망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 예금주 주민등록 앞 번호 | (남 / 여) |

CMS 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시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주소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6층 후원관리실 fax 02-2247-8004  다일공동체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다일공동체

- 📍 0255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 📍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8
- ☎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 0255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 📍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 ☎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 📍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 ☎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 📍 St N'63 Tour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 ☎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 📍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e Penh, City, CAMBODIA
- ☎ +855-17-764-440

중국 다일공동체

- 📍 133300 中国吉林省琿春市西城名园53栋1单元601, 602
- ☎ +86-433-753-8004

우간다 다일공동체

- 📍 P.O Box Kisubi, UGANDA
- ☎ Tel. +256-77107-2382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 📍 Manoha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 ☎ +911-98494-58330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 📍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 ☎ +977-98607-76685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씨 본원

- 📍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INES

까비떼 지부

- 📍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 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INES
- ☎ +63-927-560-7346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 ☎ +255-629-426-641

베트남 다일공동체

- 📍 21 đường Mỹ Giang 2B, Khu phố Mỹ Giang 2, phường Tân Phong, Quận 7,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iệt Nam
- ☎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 📍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 ☎ +1-770-813-0899
(Fax) +1-770-813-0133
- 🏠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 📍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 ☎ +1-416-824-4831

아름다운 세상찾기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4박 5일)
188기/ 1월 8일(월)-12일(금)
189기/ 2월 19일(월)-23일(금)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4박 5일)
50기/1월 22일(월)-26일(금)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5박 6일)
24기/1월15일(월)-20일(토)

2018년 미국 북가주(샌프란시스코/몬트레이) 다일영성수련 아름다운 세상찾기

일정 2018년 5월 21일-25일 **문의** 김고운 미주다일공동체 원장 1-770-813-0899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031-585-6478, 031-585-2004, 010-3671-8014 **홈페이지** sgdail.org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의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담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통화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네비게이션으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다일천사병원 앞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탐승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후원신청서 작성



후원신청서 사진 전송



다일직원 확인전화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QR코드